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11. 3.(일) 11:00  
(지면) 2024. 11. 4.(월) 조간

배포 2024. 11. 1.(금) 오후

# 군소도서국가의 해양 탄소중립 역량, 한 단계 끌어올린다

- 해수부·국제해사기구(IMO), 11.4(월)~8(금) 간 선박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방안 교육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국제해사기구(IMO)와 함께 군소도서국·저개발국을 대상으로 11월 4일(월)부터 8일(금)까지 5일간 부산에서 '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현장 교육프로그램(GHG-SMART)'을 시행한다.

\* IMO(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) : 해사안전,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·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 전문기구(정회원: 176개국, 준회원: 3개국)

\*\* GHG-SMART(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) TRAINING PROGRAMME

군소도서국·저개발국의 해운·항만 정책담당자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'22년부터 매년 'GHG-SMART 교육프로그램'을 진행하고 있다. 올 상반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었고, 이번에는 담당자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현장 교육으로 진행된다.

이번 현장 교육에서는 피지 등 13개국의 공무원들이 참여할 예정으로,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현황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.

\* 감비아, 그레나다, 나우루, 동티모르, 모잠비크, 바하마, 사모아, 세네갈, 세인트루시아, 쿡아일랜드, 파푸아뉴기니, 팔라우, 피지

이와 더불어, 친환경 선박·항만 및 대체연료 등과 관련된 조선소·선박 기자재 업체를 방문하여 친환경 기술개발 현장을 체험하는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해양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향하는 중요한 과제”라며, “이번 교육프로그램이 군소도서국 등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기술개발 강화에 도움이 되고, 우리나라의 해양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	책임자	과 장	남창섭 (044-200-5830)
	해사산업기술과	담당자	사무관	이치경 (044-200-5834)



# 2024 GHG SMART

Practical Training and Study Visit



4-8 November 2024



Busan, Republic of Korea

